

보도시점 2023. 7. 21.(금) 19:00 (2023. 7. 22.(토) 조간)

이정식 장관, G20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정책 소개

- 사우디아라비아와 고용노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각국과 양자협력 강화도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7월 21일(금) 인도 인도르(Indore)에서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이하 G20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G20 장관회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 차원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올해는 “글로벌 직업능력 격차 해소”, “각·플랫폼 종사자 사회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보험”을 포함해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각국과의 양자협력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아흐메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등 관련 정책공유 및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 협력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최근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기업·노동자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성 장관)과는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일 고용노동장관 면담은 2005년 이후 18년 만으로,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G20 장관회의와 양자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우리나라 노동개혁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한편, 국제사회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개발협력지원팀	책임자	과 장	전대환 (044-202-7162)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하지영 (044-202-7165) 위수환 (044-202-7164)

참고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7.21.(금), 인도 인도르

○ (참석)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노동부 장관,
ILO, OECD, 세계은행(WB),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

* (G20) 인도(의장국), G7(美·日·英·獨·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한, 中, 호주, 러시아,
튀르키예,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EU

** (초청국)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오만

○ (의제) ①글로벌 직업능력 격차 해소
②긱(Gig)·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호
③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

□ 회의 주요 일정

시간	주요 일정
오전	• 개회사 * 인도 → 인도네시아<'22 의장국> → 브라질<'24 의장국> 順
	• 국제기구 연설(OECD, ILO, WB, ISSA)
	• 참여그룹 연설 (의장국 노·사·청년·여성 단체 등)
	• 국가별 고용노동장관 연설 (1부)
	• 사우디 장관 면담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MOU 체결
	• 오찬
오후	• 국가별 고용노동장관 연설 (2부)
	•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면담
	• 폐회사 * 인도 → 인도네시아<'22 의장국> → 브라질<'24 의장국> 順